

외국인 교환학생의 초급 한국어 학습 배경 및 학습 요구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Learning Background and Needs of Foreign Exchange Students at the Beginner Level of Korean

김현주*

국문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배경, 학습 동기 및 학습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환학생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C대학교와 M대학교에서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초급 한국어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교환학생들은 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동기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의 주요 목적은 한국 생활 적응과 한국 친구와의 소통, K-Culture 콘텐츠의 이해였다. 또한, 한국어 수업 시수가 부족하고, 문화 중심의 수업과 실생활 회화 중심의 학습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학습자들은 개인적 흥미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진로나 직업적 목적보다는 문화적 관심이 주된 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환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요구를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교환학생, 초급 한국어, 한국어 학습 배경, 학습 동기, 요구 분석

- 차례**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언

202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2005년 12,314명이었던 유학생 수가 2010년에는 83,842명, 2020년에는 153,695명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208,962명으로 20만 명이 넘는 숫자에 이르렀다.¹ 이 중에서 교환학생은 2010년에는 3,348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16년에는 10,948명으로 1만 명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환학생 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1. 서론

외국인 유학생은 크게 일반 연수와 유학으로 구분된다. 일반 연수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유학생을 지칭하며, 유학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청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1 다음은 교육부 공시 자료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중 일부이다.

연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유학생수(명)	22,526	83,842	91,332	153,695	208,962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101034>)

최근 다시 1만 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 2010년 전체 유학생 대비 교환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9%였는데, 2024년은 5.0%으로 지속적으로 전체 유학생에서 교환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환학생은 한 학기나 두 학기 정도 본인이 속해 있는 대학과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 대학에서 전공 과목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지칭한다. 학위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학 연수생과 구별되어 유학생 범주에 속할 수 있으나, 이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어 특별히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이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대학 기관에 속해 있는 유학생과는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동기 및 목적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교환학생 중에서도 초급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본국에서의 전공이 한국어와는 관련이 없는 전공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본국에서의 전공이 한국어나 한국 문학, 한국학 등 한국과 관련있는 전공을 공부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고급 한국어 수준의 교환학생은 본국에서 이미 한국어 학습을 하였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중고급 단계의 급수를 획득한 학습자가 대부분이다. 김현주도 언급하였듯이,³ 같은 교환학생의 범주에 속해 있더라도 초급 한국어 학습자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나 학습 목적, 학습 목표 등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안 등을 계획할 때에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그 요구 내용 등이 다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교환학생 중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학습어 학습 배경 및 한국어 학습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 과

정 개발 및 교수 방안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 외국인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배경은 어떠한가?
- 외국인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 외국이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요구는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2. 선행 연구

외국인 교환학생은 대학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 학습자군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 받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은 제한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한국어 학습 배경이나 학습 동기, 학습 목적 등은 일반 유학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학생 수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외국인 교환학생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장채린·남신혜,⁴ 장현목⁵은 교환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초급 교환학생을 위한 과제 중심 한국어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및 교환 학생을 위한 과제 기반 말하기 수업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최지영⁶은 교환 학생의 자기 조절 학습 능력과 교실 밖 한국어 학습 양상을 분석하였다. 박수연은 교환

2 다음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외국 학생 현황을 참고하여 연도별 교환학생 수를 정리한 내용이다.

연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교환학생 수(명)	3,348	4,820	2,695	10,573

(<https://www.academyinfo.go.kr/search/search.do>)

3 김현주, 「온라인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 교환 학생 대상 초급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96, 중앙어문학회, 2023, 301~323쪽.

4 장채린/남신혜, 「초급 교환학생 학습자를 위한 과제 중심의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4(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22, 267~292쪽.

5 장현목,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교양한국어 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대학교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98, 중앙어문학회, 2024, 205~229쪽.

6 최지영, 「대학원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 사례 연구」, 『국제어문』 98, 국제어문학회, 2023, 607~639쪽.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서정민·김형민⁷은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적응 양상에 대해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 및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홍유니·안정민⁸, 유승금·안정화·이재선⁹, 김보영·강한¹⁰ 등이 그 예이다. 이들은 교환학생을 한국어 수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들의 학습 동기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교환학생은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습 동기 및 학습 목적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교환학생 전체보다는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습 동기 및 요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보영·강한은 중급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어 학습 배경 및 글쓰기 수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설문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24년도 2학기 서울 소재 C대학교와 M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초급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이 수강하고 있는 초급 한국어 강좌는 3학점 교과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각각의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15주나 16주 동안 진행된다. 두 교과목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개설된 교과목으로 수업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같은 교재를 사용하여 거의 동일한 수업 내용과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초반의 학습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한 학기 체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9.6%의 학습자들은 두 학기 동안 체류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2	30.5
	여성	73	69.5
	합계	105	100
나이	18~19세	5	4.8
	20~23세	96	91.4
	24~26세	3	2.9
	27~29세	1	0.9
	합계	105	100
체류 기간	한학기	74	70.4
	두학기	31	29.6
	합계	105	100

총 39개국의 학습자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으며, 유럽권이 59%, 아시아권이 21.9%, 북아메리카권 10.5%, 남아메리카권 6.7%, 아프리카권 1.9%로 나타났다. 어학 연수생이나 학위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2024년 기준 아시아 지역이 182,534명으로 전체 유학생 중 93.8%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교환학생은 유럽권이나 미주권 출신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¹¹

11 〈표 3〉 2024년 출신 지역별 유학생 수

	어학연수	대학	대학원	기타연수	합계
남아메리카	301	308	295	130	1,034
북아메리카	600	1,064	782	1,771	4,217
아시아	45,041	89,512	47,981	7,101	189,635
아프리카	363	661	1,854	133	3,011
오세아니아	54	127	81	122	384
유럽	2,565	1,952	1,161	5,003	10,681
합계	48,924	93,624	52,154	14,260	208,962

7 서정민/김형민,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및 한국 생활 적응 양상 연구」, 『한국학 연구』 91,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24, 143~171쪽.

8 홍유니·안정민,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연구」, 『이중언어학』 81, 이중언어학회, 2020, 369~397쪽.

9 유승금·안정화·이재선,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 및 요구도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6, 다문화사회와 교육학회, 2024, 145~179쪽.

10 김보영·강한, 「교환학생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배경 및 학습 요구 분석: 중급 한국어 쓰기 과목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21(1), 2005, 1~25쪽.

〈표 2〉 연구 참여자 국적

국적	빈도(명)	비율(%)	국적	빈도(명)	비율(%)
프랑스	27	25.7	오스트리아	1	0.9
독일	9	8.6	핀란드	1	0.9
미국	9	8.6	덴마크	1	0.9
네덜란드	5	4.8	몰도바	1	0.9
벨기에	4	3.8	스페인	1	0.9
일본	4	3.8	슬로바키아	1	0.9
중국	3	2.9	슬로베니아	1	0.9
대만	3	2.9	에스토니아	1	0.9
체코	3	2.9	루마니아	1	0.9
브라질	3	2.9	노르웨이	1	0.9
인도네시아	3	2.9	러시아	1	0.9
캐나다	2	1.9	말레이시아	1	0.9
페루	2	1.9	카자흐스탄	1	0.9
체코	2	1.9	우즈베키스탄	1	0.9
루마니아	2	1.9	파키스탄	1	0.9
싱가포르	2	1.9	코스타리카	1	0.9
베트남	2	1.9	멕시코	1	0.9
튀르키예	2	1.9	이집트	1	0.9
리투아니아	1	0.9	모로코	1	0.9
스위스	1	0.9	합계	105	

3.2 설문 조사 내용

설문지 문항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째, ‘학습자 기본 정보’에서는 ‘성별, 나이, 국적’ 등 기본 정보에 대한 문항이었다. 둘째, ‘한국어 학습 배경’ 항목에서는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 및 학습 방법,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 수업 수강 동기, 수업 외 한국어 자습 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셋째, ‘한국어 학습 요구 사항’에서는 한국어 수업 시수, 수업 내용, 수업 방식 등에 관한 ‘한국어 수업 만족도’에 관해 질문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어려운 영역, 선호하는 학습 주제 및 수업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귀국 후 한국어를 계속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질문 유형은 객관식으로 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교육부 공시 자료 참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101034>)

을 적을 수 있도록 개방형 대답으로도 구성하였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초급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영어로 작성하고, 영어로 답변하도록 하였다.

〈표 3〉 연구 참여자 국적

주제	내용	유형	문항수
학습자 기본 정보	성별, 나이, 국적	선다형	3
한국어 학습 배경	한국어 학습 경험 및 학습 방법,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 수업 수강 이유, 한국어 자습 시간	선다형	5
한국어 학습 요구 사항	한국어 수업 만족도 (수업 시수, 내용, 교재, 수업 방식 등), 한국어 학습 시 중요한 영역,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영역, 선호하는 학습 주제, 선호하는 수업 방식	선다형	9

총 17개의 문항 중에 15개의 문항은 선다형으로, 2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선다형 문항 중에 질문에 따라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고, 상세한 대답이 필요한 문항은 추가로 개방형 응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가 끝난 후에 설문 조사지를 직접 취합한 후, 문항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개방형 문항은 학습자들의 응답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적인 주제 등으로 정리하고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빈도수가 높지 않은 응답이더라도 의미 있는 답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설문 조사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한국어 학습 배경 분석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84명(80%)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21명(20%)의 학습자만이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2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적도록 하였는데, 혼자서 공부하였다는 응답이 71.4%, 학교

및 어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였다는 응답이 28.6%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글 읽기와 인사말, 간단한 표현 등을 알고 있는 정도였다. 혼자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주로 책이나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공부했다고 답변하였다.

〈표 4〉 한국어 학습 경험 및 학습 방법

		빈도(명)	비율(%)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경험	있다	21	20
	없다	84	80
학습 방법	혼자서 공부함	15	71.4
	학교 및 어학원	6	28.6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2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K-pop, K-movie, K-drama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는 응답자가 18명(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국 친구와 교류를 위해(5명, 20%), 외국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2명, 8%)의 응답이 있었다. 전공이나 희망 직업과의 관련성이나 자기 계발 등의 이유 등에 대해 응답한 학습자는 없었다. 즉,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동기는 장래 희망이나 진로 등에 있어서 한국어의 연관성 등으로 인한 한국어 학습 동기보다는 문화적 관심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호기심이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한국어 학습 동기(복수 응답)

	빈도(명)	비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18	72
한국 친구와의 교류	5	20
외국어 학습에 대한 호기심	2	8
전공과의 관련성	-	-
희망 직업과의 관련성	-	-
자기 계발	-	-

한국어 수업 수강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다양한 학습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2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

으로는 K-pop, K-drama, K-movie, 한국 콘텐츠 등을 포함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와 ‘한국 친구와 교류하기 위해서’가 각각 25%, 24.2%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문화적·사회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한국어 학습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한국어가 재미있어서’라는 응답도 14.7%의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는 학습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 비율은 5.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배경이나 학습 목적이 어학연수생이나 학위 과정의 유학생과 구별되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기타 응답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점이 필요해서’ 등의 이유가 있었다.

〈표 6〉 한국어 수업 수강 이유(복수 응답)

	빈도(명)	비율(%)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32	27.6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29	25
한국 친구와의 교류를 위해	28	24.2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17	14.7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6	5.1
기타	4	3.4
합계	116	100

수업 외 한국어 자습 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48.5%) > 0~1시간(23.9%) > 2~3시간(18%) > 3~4시간(5.8%) > 4시간 이상(3.8%)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이나 과제의 양과 내용 등을 설정할 때 참고할 내용으로 보인다.

〈표 7〉 한국어 자습 시간(1주일 기준)

	빈도(명)	비율(%)
0~1시간	25	23.9
1~2시간	51	48.5
2~3시간	19	18
3~4시간	6	5.8
4시간 이상	4	3.8
총합	105	100

4.2 한국어 학습 요구 분석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 조사를 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 수업 내용, 수업 방식, 수업 시수 등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각각 64.0%, 20.0%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수업 방식 역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가 70.0%, 1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업 내용이나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 수업 시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서울의 C대학교와 M대학교는 모두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66.2%의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보통이다’와 ‘만족한다’는 응답은 22.4%, 11.4%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1시간 30분씩 일주일에 2번 수업을 원한다’거나 ‘3시간이 부족하다. 더 많은 시수를 원한다’, 또는 ‘1시간이나 2시간씩 더 많은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등의 개방형 답변을 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배정되어 있다 보니 수업의 양이 많아지고, 수업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학습자들의 집중력 경향이 있다. 또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학습자들이 충분히 복습을 하지 않는 이상 학습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중심의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문화 수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30명~50명 정도의 대규모 수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언어 수업에 알맞은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 격차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수업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응답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반복을 많이 하고 속도가 느리다’라는 답변이 있었다.

〈표 8〉 한국어 수업 만족도

	수업내용	수업방식	수업시수
	명(비율)	명(비율)	명(비율)
매우만족한다	66(64.0)	73(70.0)	0
만족한다	22(20.0)	18(16.7)	12(11.4)
보통이다	17(16.0)	14(13.3)	24(22.4)
만족하지 않는다	-	-	69(66.2)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	-	-
	105(100)	105(100)	105(100)

한국어 수업 교재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2%로 가장 높았고, ‘만족하지 않는다(35.3%)’와 ‘만족한다(17.1%)’, 매우 만족한다(10.4%)’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재에 대해 보통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생활에 쓰이는 표현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가 너무 많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습자들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을 교실 밖 실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단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의 일상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 등을 학습하기를 기대하였으나, 교재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어휘나 표현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한국어 수업 교재 만족도

	빈도(명)	비율(%)
매우만족한다	11	10.4
만족한다	18	17.1
보통이다	39	37.2
만족하지 않는다	37	35.3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	-
	105	100

다음은 한국어를 배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결과이다. 말하기(43.4%) > 어휘(17.2%) > 문화(13.9%) > 발음(8.3%) > 듣기(8.3%) > 문법(5.7%) > 쓰기(1.6%) > 읽기(1.6%)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의 43.4%를 차지한 ‘말하

기'는 교환학생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쓰기와 읽기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역시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가 실용적인 의사소통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실용적인 말하기 중심의 교수법과 함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어휘나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수하는 것일 좋을 것이다.

〈표 10〉 한국어 학습 시 중요한 영역(복수 선택)

	빈도(명)	비율(%)
말하기	53	43.4
어휘	21	17.2
문화	17	13.9
발음	10	8.3
듣기	10	8.3
문법	7	5.7
쓰기	2	1.6
읽기	2	1.6
총합	122	100

한국어 학습 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영역은 '문법(26.6%)'이었다. 교환학생 대부분이 한국어와 전혀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권의 학습자들이어서 생소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어휘 역시 같은 이유로 어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와 발음은 실제 표현 능력과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문화는 수업 시간에 학습하거나 암기하는 영역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해 비교적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표 11〉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영역(복수 선택)

	빈도(명)	비율(%)
문법	33	26.6
어휘	24	19.4
말하기	17	13.7
발음	17	13.7
듣기	12	9.7
쓰기	12	9.7
읽기	9	7.2
문화	-	-
총합	124	100

가장 선호하는 수업 주제는 여행(19.1%) > 음식 주문(16.3%) > 일상 생활(13.1%) > 인사나 소개(10.9%) > 한국 영화나 드라마 속의 대화(10.9%) > 쇼핑(9.2%) > K-pop 가사(7%) > 교통 시설 이용이나 안내(5.4%) > 학교 생활(5.4%) > 병원이나 약국 이용(2.7%)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여행', '음식 주문', '일상 생활' 등은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으로, 직접 활용 가능한 상황 중심의 주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drama, K-movie, K-pop' 속의 표현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가 한국어 학습의 동기 중 상위 부분을 차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병원이나 약국 이용하기'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높지만, 실생활에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접할 가능성이 낮은 주제로 학습자들의 선호도 역시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 속에서의 대화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12〉 선호하는 수업 주제(복수 선택)

	빈도(명)	비율(%)
여행	35	19.1
음식 주문	30	16.3
일상 생활	24	13.1
인사/소개	20	10.9
K-drama, K-movie 속 대화	20	10.9
쇼핑	17	9.2
K-pop 가사	13	7
교통	10	5.4
학교 생활	10	5.4
병원/약국 이용	5	2.7
	184	100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에서 초급 한국어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배경, 학습 동기, 학습 요구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급 한국어 수준의 외국인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며, 많은 학습자가 K-pop이나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같은 대학 기관에 속해 있기는 하나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과는 학습 배경이 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교환학생 초급 한국어 학습자는 장기적인 학업 계획이나 진로와는 무관한, 문화적 흥미로 인한 학습 동기를 보여주었다.

둘째, 한국어 수업 참여 동기 역시 ‘한국 생활 적응’이나 ‘한국 친구와의 교류’ 등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이 주를 이루었으며, 개인적인 흥미나 문화적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환학생, 특히 초급 한국어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

업에서는 실생활 중심의 한국어 대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들은 수업 내용과 방식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출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으로는 언어 학습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수업 외의 한국어 자습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어서 수업 내용의 반복과 복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 교재에 대해서도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표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넷째, 학습자들은 한국어 ‘말하기’ 영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문법’과 ‘어휘’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수업 주제로는 ‘여행, 음식 주문, 일상 생활’ 등 실용적인 주제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은 진로 선택이나 지식의 습득 영역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일상 생활을 도와주는 도구적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교환 학생 대상의 초급 한국어 수업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급 한국어 수업은 좀더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같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라 하더라도 사전 학습 경험이나 학습자의 모국어 배경 등에 따라 학습 능력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요구에 맞게 실생활 중심의 회화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실생활 중심의 회화, 즉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표현을 활용한 회화 중심의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대학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대학 분석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상을 세분화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환학생의 관심을 반영하여 K-drama, K-movie, K-pop 등을 활용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 및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을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시수에 대한 학습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 자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보영·강한, 「교환학생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배경 및 학습 요구 분석: 중급 한국어 쓰기 과목을 중심으로」, 『언어와문화』 21(1), 2005.
- 김현주, 「온라인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 교환 학생 대상 초급 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96, 중앙어문학회, 2023.
- 서정민·김형민,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및 한국 생활 적응 양상 연구」, 『한국학 연구』 9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4.
- 유승금·안정화·이재선,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 및 요구도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6, 다문화사회와 교육학회, 2024.
- 장채린·남신혜, 「초급 교환학생 학습자를 위한 과제 중심의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4(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22.
- 장현묵,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교양한국어 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대학교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98, 2024.
- 홍유니·안정민, 「교환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연구」, 『이중언어학』 81, 이중언어학회, 2020.

Abstract**A Study on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Background
and Learning Needs Analysis
of Foreign Exchange Students**

Focusing on Beginner Korean Language Learners

Kim, Hyun-Joo |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backgrounds, motivations, and needs of beginner-level foreign exchange students, aiming to propose effective pedagogical strategies tailored to this learner group.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105 exchange students enrolled in beginner Korean language courses at C University and M University in Seoul.

Findings reveal that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initiated Korean language study driven by interest in Korean culture. Their primary learning goals included adapting to life in Korea, engaging in communication with Korean peers, and comprehending K-Culture content. Moreover, respondents reported dissatisfaction with the limited instructional hours and expressed a strong preference for culturally integrated, practical, and conversation-focused instruction. The data further indicate that learners' motivations are predominantly personal rather than academic or professional.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need for a Korean language curriculum designed specifically for exchange students, emphasizing practical communicative competence alongside cultural literacy to better align with learners' unique motivations and requirements.

Keywords exchange students, beginner Korean, Korean language learning background, learning motivation, needs analysis
